

광주 4월 아파트 입주 '0'...거래도

한



2월 1~19일 1435건 전년비 65%↑
코로나19 확산 이후 6.6% 감소세
전·월세도 1886→1203건 36%↓
국토부, 4~6월 광주입주량 63% 급감

코로나19가 덮친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초·중반까지 활발하던 아파트 거래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봄철 성수기가 무색하게도 다음달 광주에는 입주예정인 아파트 물량이 없다는 점에서 한동안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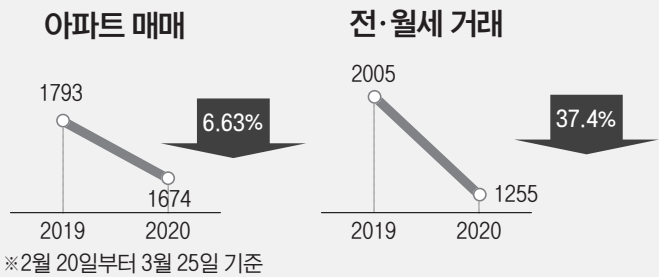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신천지 대구 교회 예배에 참석한 광주 신도와 그 가족이 확인 판정을 받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5일까지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는 167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793건)보다 6.63% 감소했다.

전·월세 거래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같은 기간 전·월세 거래는 1255건으로 전년(2005건)에 비해 무려 37.4%나 줄었다.

이는 신천지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 광주지역 아파트 거래 시장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지난 2월 1일~19일 광주지역 아파트 거래는 1435건으로 전년(868건) 대비 65.3%나 오르는 등 급증세를 보여왔다.

전·월세 거래도 1008건에서 1032건으로 2.4% 증가하는 등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추세였다.



매매와 전·월세 계약을 종합한 거래량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1876건에서 2467건으로 전년보다 31.5%나 오히려 증가했다. 이후에는 3798건에서 2929건으로 전년 대비 22.9% 줄어드는 등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활발하던 아파트 거래가 코로나19로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다음달 광주지역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봄철 이사·입주 성수기임에도 당장 다음달 광주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 물량이 없다는 점에서 거래 감소 분위기는 한동안 더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월~6월 광주의 입주 물량은 1578가구로 전년 4271가구에 비해 63.05%나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4월은 입주 물량이 0건으로, 이후 5월 복구 연제동 힐스테이트(1196가구)와 6월 광산구 소촌동 국제미소래(382가구)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광주의 한 공인중개사는 "코로나19로 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매매나 전·월세 등 모든 거래가 감소 추세"라며 "입주물량도 예년에 비해 적은 수준이어서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LH, 광주전남 주택 561호 매입...저소득층에 임대

광주 425호·전남 136호

LH 광주전남지역본부부는 도심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최저소득계층과 청년, 신혼부부가 현재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중 임대조건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사업이다.

광주·전남지역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479호를 매입해 임대하고 있다.

올해 광주·전남 다가구주택 등 매입물량은 총 561호로 광주 425호, 전남 136호를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대상 주택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사유승인을 받은 다가구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생활편의성과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평가 가격에 선별 매입하게 된다.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 동 전체 일괄 매입만 가능하다.

매입상세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LH 광주전남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 중형 아파트 매매가 2년새 15% 상승

광주지역 중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2년 사이 15%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경제란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6대 광역시의 중형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억 8587만원으로 지난해 2월 2억 7414만원 대비 4.28% 상승했다.

광주는 2018년 2월 중형아파트 평균매매가가 2억2784만원에서 지난해 2억5827만원으로 뛰었고, 올해는 2억6251만원까지 올라 2년간 15.2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대전에 이어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은 것이다.

대전은 중형아파트 평균매매가가 같은 기간 2억2726만원→2억5169만원→3억155만원으로 2년 동안 32.69%나 올랐다.

이밖에 인천은 2억6618만원에서 2억 8520만원으로 7.15% 상승, 대구는 2억7575만원에서 2억 8530만원으로 3.46% 올랐다. 부산은 2억 9385만원에서 2억9650만원으로 0.90% 상승한 반면, 지역 경제침체를 겪는 울산은 2억5685만원에서 2억3889만원으로 7.0%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내게 맞는 전세임대 '전세임대포털'서 찾아보세요

LH, 맞춤정보제공 확대

LH는 26일 전세임대 고객들의 주택물색을 지원하고전세임대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전세임대포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포털'은 전·월세 관련 각종 정보제공과 상담업무 등을 위해 2007년 구축된 LH전월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한 것이다.

주요 기능은 전세임대 가능주택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제공하는 '전세임대 BANK', 권리분석 신청 및 진행현황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온라인 권리분석', 사용자 간 질의응답·후기 등을

공유하는 '온라인 소통창구', 전세임대 공고·사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전세임대 종합안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전세임대포털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회원가입 이벤트', '최대매물 등록 이벤트' 등 3회에 걸친 오픈이벤트와 홈페이지에 대한 네이밍 공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집 문제로 고민하는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전세임대 관련 맞춤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 주거안정 강화에 더욱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청년의 삶 개선...34세도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혜택 확대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 인하도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 연령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한 금리가 인하된다.

도심의 낡은 고시원이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에 대한 주택 지원 방안을 담은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앞서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 연령 상한을 기존 만 25세 미만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신설된 구간인 25~34세 청년에겐 대출한도 5000만원으로 1.8~2.4%의 금리에 제공된다. 대출 대상 주택은 보증금 7000만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25세 미만이면서 단독세대주인 청년에게는 대출한도 3500만원에 1.2~1.8%의 저리로 대출이 제공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0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다.

원래 청년 전세대출 금리는 1.8~2.7%였는데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 금리가 인하된 것이다.

25세 미만이지만 단독세대주가 아닌 청년은 25~34세와 같은 조건을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전용 버팀목 금리를 평균 0.46%포인트 인하한 것으로, 가구당 연 24만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청년 1만

1000가구는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매입 단가를 기존 9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상해 입지가 좋은 역세권 건물도 공공임대로 본격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는 역세권의 노후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등을 공공이 사들여 수선 후 제공하는 공공임대다.

국토부는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를 2025년까지 1만채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올해에는 1000채를 확보할 계획이다. 물량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후 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뿐 아니라 노후 모텔, 오피스, 찜질방 등도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과 시행령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지자체 건설공사 계약액 227조...공공부문 19.2% 증가

지난해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공사 계약액은 226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58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9.2% 늘었다.

민간 부분 계약액은 전년 대비 0.9% 감소한

168조1000억원이다.

공종별로 토목(산입설비, 조정 포함) 계약액은 전년대비 9.5% 증가한 64조1000억원이다. 국토부는 작년 철도와 지하철 공사가 늘어나 토목 계약액이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건축 계약액은 162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작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한 66조원이다. /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SAMSUNG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KOREAN KOREAN

SGI서울보증

AXA AXA

AIG AIG

The K 손해보험

NH손해보험